5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증자부담-차익실현’ 뉴욕 하락..다우 1.8%↓</p>	<p>두 달간 숨가쁜 랠리를 이어온데 따른 부담감 속에서 BB&T, US뱅크프 등 은행들의 증자 계획 발표가 잇따르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마쳤음. 뉴욕 증시가 지난 3월9일 기록한 12년래 최저치에서 64% 반등한 가운데 주가가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418.77로 전일대비 155.88포인트(1.8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31.24로 7.76포인트(0.45%) 내렸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09.24로 19.99포인트(2.15%) 밀려났음.</p>
<p>‘구제금융 벗어나고파’ 美은행, 증자 →금융주 약세</p>	<p>BB&T는 이날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구제자금을 갚기 위해 15억달러의 주식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배당금도 68% 삭감했음. US뱅크프와 캐피탈원파이낸셜도 주식발행을 통해 각각 25억달러, 17억 5,000만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BB&T와 US뱅크프, 캐피탈원은 정부로부터 각각 31억달러, 66억달러, 35억 6,0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18억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키코프도 7억 5,000만달러의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p>
<p>GM 급락.."파산 가능성 높아졌다"</p>	<p>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히면서 10.6% 급락했음. 프리츠 헨더슨 CE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음. 헨더슨은 "파산보호를 신청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 제출 시한인 6월1일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언급,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했음. 미국 정부로부터 154억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생명을 연장한 GM은 오는 6월1일까지 정부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파산보호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p>
<p>유가 나홀만에 하락</p>	<p>국제 유가는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나홀만에 소폭 하락했음. 원유 재고 수준과 소비세를 감안할 때 최근 급등세가 지나쳤다는 분석과 뉴욕 증시의 하락이 유가 약세의 배경이 되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3센트(0.2%) 내린 58.50달러를 기록했음.</p>

제목	주요 내용
코스피, 가격부담 딛고 또 연중 최고	코스피가 11일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음. 누적된 피로 탓에 상승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적극 매수한 덕에 1,410 선을 지키며 사흘째 오름세를 유지.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03포인트(0.21%) 오른 1415.16에서 거래를 마쳤음. 종가기준으로 연중최고치를 경신했고 장중 1420.31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었음.
韓, 우즈벡서 5개 유전 탐사권 확보	이명박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1일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 우리측은 페르가나와 취나비드 지역 2개 광구와 광구명을 명시하지 않은 3개 광구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독점평가와 이후 6개월간 탐사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삼성 "반도체 R&D에 매출 10%이상 투자"	삼성전자(005930)가 메모리반도체시장이 아직 부진한 상황이지만 연구개발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올해에도 역시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 이를 통해 경쟁사들과 기술력 격차를 확대하고, 윈도우7와 SSD 등 새로운 시장에 대비하겠다는 전략.
ECB총재 "경기 바닥쳤다"..낙관론 선회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글로벌 경기하강이 바닥을 쳤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 리셰 총재는 "일부 대규모 경제는 이미 경기후퇴가 지난 것으로 보이며 다시 새로운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평가.
中 대출 급증세 진정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4월 중국의 대출 규모가 5,18억위안(867억달러)라고 밝혔음. 지난달 대출은 사상 최대였던 전월(3월) 1조8,900억달러의 3분의 1로 줄었음.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올 1분기와 같은 급격한 대출 확대를 지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난달 대출 급감이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음.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더라도 현재까지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중국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는 큰 악영향은 없을 전망.
중국, 비철금속산업 구조조정 추진	세계 최대 구리, 알루미늄, 아연 소비국인 중국이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국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금속 업체 통합을 추진할 계획. 이를 통해 상위 10개사가 구리 90%, 알루미늄 70%, 납 60%, 아연 60%를 생산하도록 할 방침.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